

초점

May 2026 No.1

EU의 통신정책 방향 변화 분석

(BEREC strategy 2026-2030을 중심으로)

홍현기 전문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정책연구실

EU의 통신정책 방향 변화 분석 (BEREC strategy 2026-2030을 중심으로)

홍현기 전문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정책연구실, hghong@kisdi.re.kr

요약

- '25. 12월, BEREC은 EU의 전기통신부문의 목표 달성을 위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정책방향을 포함한 'BEREC strategy 2026-2030'을 발표하였음
 - 동 전략은 기본적으로 EECC의 핵심 목표에 부합하도록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담고 있음
- BEREC strategy 2026-2030의 전략 목표는 EECC의 목표 관련 사항을 기본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3가지를 추가로 설정하여 5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였음
 - 연결성 확대 및 디지털 단일시장 촉진, 경쟁 중심의 개방형 디지털 생태계 지원, 이용자 권리 강화, 디지털 인프라 개선, BEREC의 역량 강화 등으로 5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였음
- 본고는 BEREC strategy 2026-2030의 주요 내용과 이전에 발표한 BEREC의 3개 전략을 살펴봄으로써 EU의 규제 동향을 살펴보았으며 변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기술 발전에 따라 다양한 EU의 법령이 제정되면서 EU의 규제대상은 기존의 전통적인 통신시장에서 디지털 생태계로 확대되었음
 - 신규 서비스와 전통적인 통신서비스의 결합으로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의무 및 계약 조건의 현실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용자 보호와 디지털 포용을 위한 핵심과제로 이용자 접근성 개선을 선정함
 - 에너지 효율성, 탄소 배출 등 환경 문제가 국제사회의 이슈가 되면서 친환경적 요소가 포함된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규제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반영하기로 함

- 사이버 보안, 네트워크의 복원력 확보, EU의 기술 주권 확보 등이 통신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한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자기술을 이용한 암호화, 복원력을 고려한 통신인프라 설계, 위험에 대응하는 네트워크 복원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함
- 국내에서도 기술 발전으로 통신서비스와 구분이 불명확한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해당 서비스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를 위한 입법화가 진행되고 있음
 - 국내에서도 해당 서비스 규제를 위한 통합 법령을 제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다양한 법률에서 분산되어 규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상거래법 등 기존 법령을 개정하거나 인공지능기본법(‘26.1.22 시행) 등 신규 법령을 제정하였음
 - 신규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위한 기존 법령의 개정 시, 중복규제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통합 법령 형태의 신규 법령 제정 시에도 관련 부처의 업무를 고려하여 규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법령의 제·개정 시 관련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이용자 보호,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고려도 할 필요가 있음

01 개요

- BEREC(Body of European Regulators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은 향후 초고용량 네트워크(Very High-Capacity Networks)로의 전환 및 속도 향상과 5G, 6G, 비지상 네트워크(non-terrestrial networks) 등의 보급 등을 고려해야 할 주요 기술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
 - 또한 인공지능 기반의 네트워크 관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통해 산업자동화, 센서 네트워크, 사물인터넷, 확장현실(XR), 홀로그램 통신 등의 몰입형 경험의 구현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EU(European Union)는 ´18년에 EECC(European Electronic Communications Code)를 채택한 이후 디지털 시장 및 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왔음
 - ´22년에는 DMA(Digital Markets Act), DGA(Data Governance Act), DSA (Digital Services Act), NIS 2(Cyber security of Network and Information Systems Directive), CER(Critical Entities Resilience Directive) 등을 제정 및 발표하였음
 - ´23년 DA(Data Act)와 ´24년 EMFA(European Media Freedom Act), CRA (Cyber Resilience Act), AIA(Artificial Intelligence Act) 등을 제정하였음
- 또한 EU는 ´30년까지 EU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 ‘2030 Digital Compass’를 ´21년에 발표하였음
 - 디지털 인프라 구축, 디지털 기술 역량 강화, 기업의 디지털 전환, 공공서비스 디지털화 등으로 구분하여 세부 목표를 설정하였음
 - ´22년에는 ‘2030 Digital Compass’의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정책프로그램으로 ‘Digital Decade policy programme 2030’을 채택하였음
-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25. 12월, BEREC은 EU의 전기통신부문의 목표 달성을 위해 ´26년부터 ´30년까지의 정책방향을 포함한 ‘BEREC strategy 2026-2030’을 발표하였음
 - 기본적으로 EECC의 핵심 목표에 부합하도록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담고 있음
- 본고는 BEREC strategy 2026-2030을 통해 EU의 전기통신시장의 정책 및 규제의 방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02 BEREC strategy 2026-2030의 주요 내용

- BEREC strategy 2026-2030의 전략 목표는 EECC의 목표 관련 사항을 기본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3가지를 추가로 설정하여 5개의 우선순위를 설정
 - EECC는 목표를 연결성(Connectivity) 확대, 경쟁 촉진, 디지털 시장 발전에 기여, EU 회원국 이용자 보호 등으로 설정하고 있음
 - '30년까지의 실행계획에는 EECC의 핵심목표 외에 네트워크 및 서비스의 보안과 복원력 강화, 지속가능성 목표 달성에 기여, 전문 기관으로서의 BEREC의 독립성 및 효율성 강화 등 3가지 목표를 추가로 설정하였음
 - 이를 기준으로 연결성 확대 및 디지털 단일시장 촉진, 경쟁 중심의 개방형 디지털 생태계 지원, 이용자 권리 강화, 디지털 인프라 개선, BEREC의 역량 강화 등으로 5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였음

I 우선순위

가. 연결성 확대 및 디지털 단일시장 촉진

- BEREC은 통신 네트워크 및 서비스가 현대 사회 및 경제에서 차지하는 연결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자문을 통해 디지털 단일시장의 촉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BEREC은 EU의 관련 법령의 적용을 보장하고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여 효율적 투자를 촉진하고 이용자에게 합리적 가격으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또한 경쟁 강화와 효율적 인프라 투자를 위한 진흥 및 규제 정책을 지원하고 연결성 관련 법제도의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회원국의 입법과정을 지원할 예정임
- EU의 'Digital Decade policy programme 2030'의 목표에 따라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여 서비스 커버리지의 확대와 기술 및 서비스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할 예정임
 - EU지역에서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유·무선의 초고용량 네트워크 개발과 도입을 위한 시장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인프라 접근성 관련 지침을 지속적으로 도입할 예정임
 - 필요한 경우 접근성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효율적 투자와 경쟁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임

- 회원국 공통의 표준 및 기준 설정과 GIA(Gigabit Infrastructure Act)의 적용과 EECC와 같이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입법과 인센티브를 이행할 수 있는 지원을 할 예정임
 - 고용량 네트워크로의 신속한 전환과 최종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목표로 하는 광케이블 전환 및 동축케이블 종료와 관련된 회원국 규제기구의 업무를 지원할 예정임
 - 5G 단독모드(Standalone)의 전환 과정과 6G 네트워크의 활용 방안을 고려하고 백홀링(Backhauling) 수요에 대한 검토와 디지털 인프라 및 서비스 개발을 검토할 예정임
 - 이동통신부문의 주요 네트워크 동향을 분석하고 비저상망의 발전에 따른 영향력에 대해 검토할 예정임
- EU의 디지털 단일시장을 위한 로밍 규제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안을 제시할 예정임
 - 로밍관련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향후 로밍 규제의 시행, 모니터링, 검토를 실시할 예정임
 - 사물인터넷의 경쟁상황과 시장 및 기술 동향을 분석하고 있음
 - 회원국을 제외한 전 세계 로밍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발굴하고 로밍이용자의 보호 및 투명성 보장을 위한 방안을 제시할 예정임
- BEREC은 전문성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EU의 통신 규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보장함으로써 디지털 단일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예정임

나. 경쟁 중심의 개방형 디지털 생태계 지원

- BEREC은 통신시장의 경쟁을 혁신, 투자, 이용자 편익 증진의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BEREC은 통신시장 사전규제가 문제해결을 위한 맞춤형 규제책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적 규제 방법으로 판단하고 있음
 - 경쟁 활성화 지역에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경쟁 비활성화 지역에서는 경쟁 활성화 유도 및 효율적 투자 촉진을 추진하고자 함
 - 통신시장 규제와 관련된 주요 이슈로 지리적 세분화, 일부 회원국에서의 초고용량 네트워크 구축 시 인프라 및 설비에 대한 접근성, 진입장벽을 고려한 기업용 서비스 등을 제시
- BEREC은 시장 통합, 수직분리, 자산 매각 등과 같은 통신시장의 변화에 대해 영향성을 검토하고 과점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시장 변화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규제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 BEREC은 DMA의 이행을 위한 지원과 비번호 기반 개인 통신서비스(Number-Independent Interpersonal Communication Services) 제공자에게 부과된 상호운용성 의무의 이행을 지원하고 있음
 - 또한 지속적으로 디지털 시장의 발전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DA, DMA 등 디지털 규제의 이행을 지원하며 '26년으로 예정된 DMA 검토를 포함하여 대응할 예정임
- BEREC은 인공지능 분야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통신시장에서 인공지능의 영향 외에 인터넷 개방성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검토할 예정임
 - 인공지능시장 동향과 관련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집하여, EU의 규제를 정교화 및 개선하기 위한 전문성을 확보할 예정임
- BEREC은 디지털 인프라 및 서비스 관련 EU의 법령이 효율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DA, DMA 등 기존 법령과 DNA, Cloud and AI Development Act 등 도입 예정인 법령의 정합성 강화를 위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음
 -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법령 정합성 유지, 규제 준수 용이성 확보, 예측가능한 환경 조성, 근거 기반의 규제 정책 수립을 지원할 예정임

다. 이용자 권리 강화

- BEREC은 이용자 보호 수준의 강화와 기술중립적 규제를 위해 관련기관 및 산업계와의 협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이용자 권리 및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면서 투명하고 경쟁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및 기술 발전을 이용자 관점에서 검토할 예정임
- SNS, 비번호 기반 개인 통신서비스 등의 신규 서비스가 전통적인 통신서비스와 결합되면서 서비스 간 경계가 불명확해지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의무 및 계약조건을 현실과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임
 - 신규 차등화 서비스, 서비스 품질(QoS), 네트워크 슬라이싱, 투명성 의무, 트래픽 관리, 특수 서비스 등에 중점을 두고 오픈인터넷 가이드라인에 따라 오픈인터넷 규정(Open Internet Regulation)의 이행을 위한 구조화된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예정임
- 디지털 소외 해소에 관심을 가지고 디지털 생태계 변화로 발생하는 신규 디지털 격차를 평가할 예정임
 - 통신서비스에서 이용자에게 중요한 요소는 이용 가능한 요금 수준과 연결성으로 연결성은 서비스와 플랫폼에 접근하기 위해 필수적임을 고려해야 함

- 이용자 접근성의 개선을 이용자 보호와 디지털 포용 달성을 위한 최우선 핵심과제로 선정
- 고용량 네트워크로의 고도화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번호 기반 개인 통신서비스(Number-Based Interpersonal Communications Services)의 가용성, 연속성, 상호운용성 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함
- 비번호 기반 개인 통신서비스의 확대를 이용자 보호와 유사 기능 서비스간 공정경쟁환경 조성, 그리고 사업자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와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며 AI 활용의 확대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라. 디지털 인프라 개선

- BEREC은 환경적인 지속가능성과 보안 및 복원력을 EECC의 기존 목표를 보완하는 수평적 전략 요소로 인식하여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임
- BEREC은 EU의 통신부문에서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고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미래 대응형 디지털 인프라를 설계·구축하는 것으로 비전을 설정함
- 디지털 인프라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위기상황에 대응이 가능한 수준의 견고함과 적응력이 필요함

〈환경적 지속가능성〉

- BEREC은 디지털 인프라와 관련된 기술 및 규제 발전을 고려하여, 지속가능성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반영할 예정임
- 디지털 기술이 기후변화대응과 파리협정 및 유럽 그린딜을 포함한 국제적 환경 목표 달성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연결성은 다양한 분야의 탈탄소화를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BEREC은 통신사업자가 인프라 구축 시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고 해야 하는 원칙을 지지하고 생태디자인(eco-design) 원칙 및 목적에 부합하는 모범사례를 고려할 것을 권고함
- 이와 관련하여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활동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극한의 기상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네트워크 복원력 관련 사항을 고려할 예정임
- 디지털 인프라 및 통신장비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과 물, 원자재 등의 자원 사용량을 평가 요소로 고려하고 평가방법은 생애주기평가(Life Cycle Assessment)를 기반으로 다기준, 다단계, 다요소 접근 방식으로 수행할 예정임

- BEREC은 신기술과 신규 서비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고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기회임을 인정하고 있음
 - 이에 디지털 환경 영향의 주요 요인을 분석하고 과학적 근거한 효율적 지표 체계 및 방법론을 도출할 예정임
 - 통신 네트워크 지속가능성에 관한 EU 행동지침(EU Code of Conduct)에 따라 지속가능성 지표 개발에 참여하고 환경 영향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규제 프레임워크 개선을 위한 자문을 제공할 예정임

〈사이버 보안 및 복원력〉

- 기후 변화로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 보안, 네트워크 및 필수 서비스의 복원력 확보, EU의 디지털 자립성 강화를 통한 기술 주권 확보 등은 EU 지역의 통신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한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 6G 도입, 양자통신 등 기술 발전으로 사이버 보안에 있어서도 변화가 필요한 상황임
 - 양자컴퓨팅은 기존 통신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암호체계에 위협이 될 수 있어 포스트 양자암호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러한 기술은 암호키 탈취 및 복제를 방지함으로써 데이터의 안전한 전송을 가능하게 하여 보안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BEREC은 NIS2, CER 등을 통해 도입된 새로운 보안 의무로 통신사업자의 비용, 시장경쟁, 통신요금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NIS 협력 그룹, ENISA (European Union Agency of Cybersecurity) 등과 효과적인 규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음
- 통신 네트워크 및 서비스에서 사이버 보안 및 복원력이 복합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고 문제 해결 시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통신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험 완화를 위한 운영적·기술적 조치의 이행이 필요하며 인프라 설계 시 위협과 취약성에 대응하기 위한 복원력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 BEREC은 회원국 규제기관 간의 협의체로서 통신서비스 관련 사이버 보안 및 복원력에 관한 공통된 이해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BEREC은 다양한 위협에 대한 네트워크 복원력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위기관리, 입법화, 에너지 복원력의 지속적인 개선이 중요함을 강조할 예정임

마. BEREC 역량 강화

- BEREC은 전문기관으로서 독립성, 포용성, 효율성 등의 강화를 목표로 효율성 제고, 고품질 결과물 생성, 투명성 강화, 환경적 지속가능성 증진 등을 위해 업무 수행 방식을 점검 및 개선하고 있음
- 데이터 기반 규제가 효과적 규제 수단이므로 구성원의 전문성과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 의견, 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있음
 - 수집하는 데이터 및 정보는 회원국 규제기관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정책입안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이용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 규제 활동은 이해관계자의 이행 비용을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하므로 BEREC은 자문 과정에서 업무 전반에 걸쳐 규제 단순화와 행정 부담 감소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EU의 데이터 수집 방식 개선을 위해 최신 기술과 ICT 도구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예정임
- BEREC은 효과적인 통신규제를 위해 모범사례와 가이드라인의 개발 및 확산을 추진할 예정이며 첨단 ICT 기술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 이해관계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할 예정임
- BEREC은 투명성 확보, 신뢰 구축, 이해관계자 및 주요 대상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효과적인 협력을 추진하고자 함
 - 업무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적절한 대상에게 업무의 결과가 효과적으로 도달하도록 함으로써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등에게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 BEREC의 역할과 특성으로 사이버 보안 위협이 있어 이에 대한 강화를 추진할 예정임
 - 보유 데이터의 보호를 위해 데이터 저장 및 관리를 위해 최적 데이터 웨어하우징 기술을 적용할 예정임

I 기관 및 국제 협력

- 글로벌화로 인한 상호연결성이 강화되는 디지털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BEREC 규정에 따라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있음

* BEREC 규정(Regulation (EU) 2018/1971)의 협력 관련 조항에서는 타 기관 및 국가(EU의 관계기관, 제3국, 국제기구 등)와의 협력, 업무 협정(working arrangements) 체결, 제3국 규제기관과의 협력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가. 기관 협력

- BEREC은 EECC에 근거한 주파수 정책 전문가 평가로 주파수정책그룹(RSPG; Radio Spectrum Policy Group)과 정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음
 - 5G 툴박스(EU 5G Cybersecurity Toolbox)와 사이버 보안 실행계획(Cybersecurity Action Plan)의 이행을 위해 NIS 협력 그룹 및 ENISA와 협력하고 있음
 - 번호 관련 이슈에 대해 CEPT(European Conference of Postal and Telecommunications Administrations)와 협력하고 있으며, 고위급 그룹(HLG)의 일원으로서 DMA의 이행을 위한 협력도 하고 있음
- EU법령의 이행 보장에 있어 규제 실무 이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중요해짐에 따라 BEREC은 EU의 규제 플랫폼 및 기관과의 협력 및 정보 교류를 지속해 나갈 예정임
 - 네트워크의 클라우드화 차원에서 DA이행을 담당하는 EDIB(European Data Innovation Board)와 협력을 강화하고 환경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EEA (European Environment Agency)과의 협력을 확대할 예정임
 - 비지상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EU SPA(European Agency for Space Programme)과의 협력 관계 구축도 추진할 예정임
- BEREC은 서비스 품질, 인프라 공동 이용, 지속가능성, EECC 표준화 규정 이행 등에 있어 표준화 기구와의 협력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를 추진할 예정임
- BEREC이 추진하고 있는 지표 및 데이터 수집의 조화와 간소화 목표는 Eurostat과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나. 국제 협력

- 디지털 서비스의 글로벌화로 세계 각국의 정책과 법률 및 규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짐에 따라 BEREC은 EU 외 지역의 국가 규제기관, 국제 규제 네트워크, 정책입안자 및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국제 협력을 통해 국경 간 및 공통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기술 발전 및 비즈니스 모델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음
- BEREC은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와 같은 EU 이니셔티브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 EU 로밍 영역에 편입을 추진하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국가들의 규제기관(NRA)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 BEREC은 EMERG(European Mediterranean Regulators Group), REGULATEL (Latin American Forum of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Entities), EaPeReg (Eastern Partnership Electronic Communications Regulators Network) 등 타 지역 규제 네트워크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할 예정임
 - 또한 미국(FCC), 캐나다(CRTC), 인도(TRAI) 등의 규제기관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있으며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국제기구와도 협력을 하고 있음

03 기존 BEREC 전략과의 비교

- BEREC strategy 2026-2030은 기 수립된 BEREC strategy 2021-2025('20), 타기관과의 관계 중기 전략(BEREC's Medium Term Strategy for relations with other institutions 2022-2025('21)), 국제 협력 중기전략(BEREC's Medium-Term Strategy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2022-2025('21)) 등 3개의 전략을 기반으로 이를 통합하고 발전시킨 것임

I BEREC strategy 2021-2025

가. 우선순위

- BEREC strategy 2021-2025에서의 전략 목표는 연결성 촉진, 개방적 디지털 시장 지원, 이용자 역량 강화 등 3개 항목을 우선순위로 설정하였음
- 연결성 촉진은 특히 유선 네트워크의 연결성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지침을 마련하여 회원국의 규제가 일관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위함
 - 보안과 관련하여 ENISA 및 NIS협력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5G 사이버 보안 권고(Commission Recommendation on Cybersecurity of 5G networks) 이행을 위한 지원을 수행함
 -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네트워크 기술이 유럽의 가치와 이익에 부합하는 연결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술의 개발 현황을 모니터링함
- 개방적 디지털 시장 지원을 위해 기능과 관련된 업무를 우선시하고 디지털 시장에서 서비스 제공 사업자 및 이용자와 관련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함
 - 5G 서비스 출시에 따라 오픈인터넷 규정의 일관된 적용에 기여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이용자 보호 관점의 규제 설계와 실무 적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추진하기로 함

- 이용자 역량 강화는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켜 이용자의 선택과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지원을 수행함
 - 이용자 역량 강화를 위해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용약관 등을 모니터링하고 이용자 권리에 관한 정보를 EC에 제공함
 - 투명성 측면에서 소비자단체 등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수렴을 추진하고 BEREC 규정에 따라 결과를 발표하기로 함

나. 기관 및 국제 협력

- 기관 협력은 연결성 및 5G, 플랫폼 규제와 관련하여 기관 간 조정 및 협력의 확대를 추진함
 - 5G 서비스 출시와 관련하여 RSPG와 협력을 진행 중이며 5G 및 사이버 보안을 위해 NIS 협력그룹 및 ENISA와 협력할 것임
 - 플랫폼 규제를 위해 EDPB(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와 협력을 진행 중이며 EDPS(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 ECN(European Competition Network), ERGA(European Regulators Group for Audio-visual Media Services) 등의 규제기관이나 ERGP(European Regulators Group for Postal Services), Eurostat, ESA(European Space Agency), EEA 등의 기관과 협력을 추진하기로 함
- 국제 협력은 BEREC strategy 2026-2030과 동일하게 EMERG, REGULATEL, EaPeReg등 타 지역 규제 네트워크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함
 - 미국, 캐나다, 인도 등의 규제기관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있으며 국제전기통신연합, 경제협력개발기구 등의 국제기구와도 협력을 하고 있음

I 타 기관과의 관계 중기전략

가. 주요 내용

- 동 전략은 BEREC strategy 2021-2025의 우선순위 달성을 위한 타 기관과의 관계를 식별하고 BEREC 규정에 따라 EU 산하기관 간 협력을 위한 전략을 채택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BEREC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제 3지역의 연합기구, 규제기관 등의 기관과의 협력에 대한 전략을 포함하고 있음
 - BEREC은 비정부기구, 연구 및 학술 기관 등의 기관들과의 협력을 유지하고 있음
- 동 전략의 수행기간 동안 주파수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RSPG와의 협력을 우선하기로 함

- 사이버 보안 및 5G 사이버 톨박스와 관련하여 ENISA, ECASEC WG, NIS CG (Network and Information Systems Cooperation Group) 등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디지털 시장의 기능과 관련하여 ERGA, ERGP, EDPB, ECN 등과 규제 문제 및 의사결정과정 등에 협력을 모색하기로 함
-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EEA, ACER(Agency for the Cooperation of Energy Regulators), CEER(Council of the European Energy Regulators) 등과 협력을 추진하나 타 기관과의 협력도 추진하기로 함
- 서비스 품질 및 체감품질(QoE), 인프라 공유, 지속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CENELEC(European Committee for Electrotechnical Standardisation) 등의 기관과 협력하고자 함

I 국제 협력 중기전략

가. 주요 내용

- 동 전략은 BEREC strategy 2021-2025의 우선순위 달성을 위한 국제 관계를 식별하고 BEREC 규정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계를 위한 전략을 채택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EaPeReg, EMERG, Regulatel, ITU, TRAI, CRTC 등의 국제기구 및 국가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우선 고려하여 협력을 추진하고 FCC와의 양해각서를 재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 국제기구와의 협력 방식과 수준 결정 시 적용해야 하는 전략적 원칙을 명시함
 - 소위원회는 공동의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참여 시기, 주제, 방식 등을 결정함
 - 다자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개별 규제기관과의 협력보다 우선시 함
 - 협력의 강도는 지리적 근접성과 직접 연관될 수 있음
 - 기관 목표를 달성위해 기술 선진국과의 협력을 통해 이익을 도모해야함
 - 장기적 접근을 고려하고 EU의 규제 프레임워크의 모범 사례 확산을 통해 강력한 경쟁환경 조성에 기여해야 함
- 신규 양해각서 체결보다 기 구축된 국제협력 관계를 활용하여 잠재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I BEREC strategy 2026-2030과의 비교

가. 기술 및 법·정책 환경

- BEREC strategy 2021-2025는 유선 중심의 초고용량 네트워크 구축과 상용화 초기의 5G 기술 활용에 관심을 두고 있으나 BEREC strategy 2026-2030은 기술의 발전으로 초고용량 네트워크로의 전환 및 속도 향상, 5G-Advanced, 6G, 비지상 네트워크, AI기반의 네트워크 관리 등에 관심을 두고 있음
- BEREC strategy 2021-2025는 EECC의 도입 초기에 시행되어 이의 일관된 적용을 위한 목적으로 중기전략을 수립하였으나 BEREC strategy 2026-2030은 DMA, DGA, DSA, DA, EMFA, CRA, AIA, NIS 2, CER 등의 다양한 법률 및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법·정책적 환경이 변화하였음
- 이에 따라 BEREC strategy의 대상은 통신시장에서 전체 디지털 생태계로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1 | 기술 및 법·정책 환경 비교

	BEREC strategy 2021-2025	BEREC strategy 2026-2030
관심 기술	유선 중심의 초고용량 네트워크, 5G	초고용량 네트워크 5G-Advanced, 6G, 비지상 네트워크, AI기반의 네트워크 관리
법·정책 환경	EECC	DMA, DGA, DSA, DA, EMFA, CRA, AIA, NIS 2, CER

나. 목표 및 우선순위

- BEREC strategy 2021-2025와 BEREC strategy 2026-2030은 EECC의 목표를 기본 전략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BEREC strategy 2026-2030에서는 EECC의 목표에 추가로 네트워크 및 서비스의 보안과 복원력 강화, 지속가능성 목표 달성에 기여, 전문 기관으로서의 BEREC의 독립성 및 효율성 강화 등 3가지 목표를 추가로 설정
- 이에 따라 우선순위는 BEREC strategy 2021-2025에서는 연결성 촉진, 개방적 디지털 시장 지원, 이용자 역량 강화 등 3개의 우선순위로 설정
 - BEREC strategy 2026-2030은 연결성 확대 및 디지털 단일시장 촉진, 경쟁 중심의 개방형 디지털 생태계 지원, 이용자 권리 강화, 디지털 인프라 개선, BEREC의 역량 강화 등으로 5개의 우선순위로 확대됨

I 표 2 | 전략 목표 및 우선순위 비교

	BEREC strategy 2021-2025	BEREC strategy 2026-2030
전략 목표	- 연결성 확대 - 경쟁 촉진 - 디지털 시장 발전 - 이용자 보호	- 연결성 확대 - 경쟁 촉진 - 디지털 시장 발전 - 이용자 권리 강화 - 네트워크 및 서비스의 보안 및 복원력 강화 - 지속가능성 목표 달성 - BEREC의 독립성 및 효율성 강화
우선순위	- 연결성 촉진 - 개방적 디지털 시장 지원 - 이용자 역량 강화	- 연결성 확대 및 디지털 단일시장 촉진 - 경쟁 중심의 개방형 디지털 생태계 지원 - 이용자 권리 강화 - 디지털 인프라 개선 - BEREC 역량 강화

다. 기관 협력 및 국제 협력

- BEREC strategy 2026-2030은 BEREC strategy 2021-2025, 타 기관과의 관계 중기 전략 2022-2025, 국제 협력 중기전략 2022-2025 등 기존 BEREC의 전략을 기반으로 이를 통합하고 발전시킨 것임
 - 기본적으로 협력의 범위는 각 BEREC strategy의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분야로 제시하고 있음

I 표 3 | 기관 협력 및 국제 협력 비교

	BEREC strategy 2021-2025	타 기관 관계 중기전략 2022-2025	국제 협력 중기전략 2022-2025	BEREC strategy 2026-2030
전략 성격	기본 협력 전략	EU 산하기관 및 기타 기관과의 협력 전략	국제기구 및 국가 규제기관과의 협력 전략	좌 3개 전략의 통합 전략
주요 협력 범위	우선순위 플랫폼 규제	BEREC strategy 2021-2025의 우선순위	BEREC strategy 2021-2025의 우선순위	우선순위

04 결론 및 시사점

- 본고는 BEREC strategy 2026-2030의 주요 내용과 이전에 발표한 BEREC의 3개 전략을 살펴봄으로써 EU의 규제 동향을 살펴보았으며 변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기술 발전에 따라 다양한 EU의 법령이 제정되면서 EU의 규제대상은 기존의 전통적인 통신시장에서 디지털 생태계로 확대되었음
 - 빅 테크 중심의 다양한 플랫폼 기반 서비스가 출시되면서 통신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고 전통적인 통신서비스와의 구분이 불명확해지면서 기존 통신시장 규제만으로는 효과를 얻을 수 없어 이를 디지털 생태계로 확대하였음
- 신규 서비스와 전통적인 통신서비스의 결합으로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의무 및 계약 조건의 현실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용자 보호와 디지털 포용을 위한 핵심과제로 이용자 접근성 개선을 선정함
 - 기존의 모니터링과 투명성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이용자 보호에서 디지털 포용, 이용자 접근성 개선 등을 중심으로 확대하여 이용자 보호에 이용자 권리 개념을 도입함
- 에너지 효율성, 탄소 배출 등 환경 문제가 국제사회의 이슈가 되면서 친환경적 요소가 포함된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규제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반영하기로 함
 - 지속가능성 평가 요소 및 방법론을 검토하고 관련 지표 개발에 참여하고 환경 영향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규제 프레임워크 개선을 위한 자문을 제공하기로 함
- 사이버 보안, 네트워크의 복원력 확보, EU의 기술 주권 확보 등이 통신과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자기술을 이용한 암호화, 복원력을 고려한 통신인프라 설계, 위협에 대응하는 네트워크 복원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함
- 국내에서도 기술 발전으로 통신서비스와 구분이 불명확한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해당 서비스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를 위한 입법화가 진행되고 있음
 - 국내에서도 해당 서비스 규제를 위한 통합 법령을 제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다양한 법률에서 분산되어 규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상거래법 등 기존 법령을 개정하거나 인공지능기본법(’26.1.22 시행) 등 신규 법령을 제정하였음

- 신규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위한 기존 법령의 개정 시, 중복규제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통합 법령 형태의 신규 법령 제정 시에도 관련 부처의 업무를 고려하여 규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법령의 제·개정 시 관련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이용자 보호,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글로벌 표준 동향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고려도 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BEREC, “BEREC Action Plan for 2030”, 2023.3.9.

_____, “BEREC’s Medium Term Strategy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2022–2025”, 2021.9.30.

_____, “BEREC’s Medium Term Strategy for relations with other institutions 2022–2025”, 2021.9.30.

_____, “BEREC strategy 2021–2025”, 2020.6.11.

_____, “BEREC strategy 2026–2030”, 2025.12.8.

EU, “2030 Digital Compass: the European way for the Digital Decade”, 2021.9.3.

KiSDi Perspectives 발간 내역

KiSDi Perspectives는 국내외 정보통신미디어 관련 주요 정책 및 동향을 분석한 리포트입니다.

문의: 노희윤 부연구위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디어정책연구실, hyooooon@kisdi.re.kr, 043-531-4042)